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2012 December /
2013 January

Contents

- Highlight & 뉴스
- UNEP FI 출판물
- UNEP FI 행사
- UNEP FI 트레이닝
- UNEP FI 커뮤니티
- UNEP FI KG 뉴스



“New Normal 창조”: Rio+20에 뒤이은 지속가능발전 금융의 새로운 관점



2012년 6월, 전세계 지도자들은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유통 및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 개발을 위해 정부간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UNEP FI 회원사들은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지속가능개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저비용 금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해당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New Normal 창조' 보고서는 의미 있고 성공적인 지속가능개발 금융 전략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정의하며,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토론에 포함시키고 싶어할만한 몇 가지 이슈를 조명하고자 한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저탄소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자본 부문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대해 UNEP FI는 18차 COP/ 8차 CMP에서 GCF에 집중하기로 함



UNEP FI가 주최하는 사이드 이벤트에서 패널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 민간 기후금융 정의에 대한 애매함 존재
- 민간부문의 자금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과 연결하는 방안 및
- GCF 민간부문기능(Private Sector Facility)이 필요한 곳에 자본이 활용되도록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방안들

패널들은 또한 민간부문금융이 기후완화를 잠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 GCF가 민간부문금융을 레버리지하는데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임
- 공공기금은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민간부문금융을 레버리지 하기 위해 사용해 왔음
- 부채와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임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Tomorrow's Capital Markets 출간

Tomorrow's Capital Markets
A private investor to work with
Tomorrow's Company to set new
incentive structures for a sustainable world



*Tomorrow's Capital Markets*은 현재 인센티브구조의 효율성에 관한 지속가능성 조사 및 눈에 띄는 결함들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노력의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11월 29일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자본시장의 바뀐 역할과 Aviva Investor의 Paul Abberley와 David Pitt-Watson의 기부금으로 강한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출간물은 투자망(investment chain)을 따라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한 인센티브의 복잡함을 정의하고 이런 복잡한 망에서 발생하는 몇몇 근본적인 문제들(의사소통의 차이부터 신뢰 가능한 통계 문제까지)을 지적한다.

출간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호주, 영국, 미국에서 E-RISC 보고서 출간



11월, 호주, 영국, 미국에서 *E-RISC* (Environmental Risk in Sovereign Risk: 국가신용도에 환경위험 반영)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출간됐다. UNEP FI, Global Footprint Network, 다수 자산가들(asset owner), 투자자산 운용사 및 정보제공자들에 의해 위 프로젝트가 출범되었다.

E-RISK 프로젝트는 천연자원 리스크 및 환경영향과 같은 지금까지는 채권시장에서 간과되었던 시각을 통해 국가신용위험을 연구한다. 또한 천연자원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소가 국가의 경제 및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현재 국가 채무가 40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위험성이 높아 채권 발행에 면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원가격, 생태계 퇴화, 기후변화영향과 같은 인자들이 국가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국가신용위험모델, 그리고 국가채권과 국가신용도의 선택과 가중치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최초로 보여준다.

세미나 일정

E-RISC에 관한 세미나가 도쿄에 위치한 Sumitomo Mitsui 신탁은행에서 2013년 12월 26일 13:30 -15:30 (현지 시간)에 열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UNEP FI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지속가능 주류화(Mainstreaming): 독일 Bensberg 금융기관 핵심부서의 지속가능성

은행, 투자자, 보험산업,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미디어 및 학자들로 구성된 1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11월 13-14일에 모여 금융부문 핵심부서의 지속가능성 통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8차 Germanophone Roundtable Conference는 UNEP FI의 파트너사인 Germ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n Financial Institutions (VfU)가 주최했으며, '금융기관 핵심부서의 지속가능 주류화(Mainstreaming Sustainability in the Core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책임자산투자(RPI) – 리더들은 무엇을 하는가(What the leaders are doing)



책임자산투자(Responsible Property Investment) 분야는 지난 몇 년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과 신뢰를 얻었다.

*Responsible Property Investment – What the leaders are doing*의 2번째 보고서에서는 투자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선진 자산투자기구들은 의사결정 시 RPI 원칙을 적용할 때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환경과 사회활동 또는 지배구조를 증진시켰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여준다.

출간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언론 공식발표를 보려면 [여기 클릭](#)

2012 기후변화에 관한 전세계 투자자 합의서



전세계 최고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Institutional investor network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정책 대담을 요청하는 합의서를 경제규모가 큰 정부들에게 보냈다.

- 저탄소 투자를 촉진시키는 명확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들
- 성공적인 기존의 국가/지역 방법들을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인 기후 및 청정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부간 지식 공유
- 기후정책의 미래와 온실가스방출의 감소에 관해 명확한 시장신호를 보내는 내용에 대한 더 강력한 국제 협약

출간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주요 유동성 시리즈(Chief Liquidity Series) – 세 번째: 추출 산업



Chief Liquidity 시리즈의 세 번째 출간물은 넓은 추출산업 부문에서 보다 다량의 소부문에 집중한다. 첫 부분은 물 위기가 다양한 종류의 소부문 추출 산업에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결과적으로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 출간물은 다음 소부문들에 집중했다. (탄소, 층 가스, 주요 금속, 오일샌드, 기초 금속)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물 부족 국가들이 추출 부문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남아공에 집중되어있고, 각 나라 별로 문제점들과 활용 가능한 잠재적 해결책들을 상세하게 쓴 사례 연구들이 소개되어있다.

출간물의 맨 마지막에는 은행, 투자자 등에서 고객들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 인자들을 수록했다.

출간물을 보려면 [여기 클릭](#)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3 Global Roundtable (GRT)



2013년도 GRT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금융: 중국, 이머징 마켓과 세계 경제에서의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2년 UN지속가능개발회의(Rio+20)에 뒤이어 열릴 GRT는 녹색금융의 규모를 늘리고, 유동적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가운데 정치, 경제, 금융의 세계적 힘의 균형을 본질적으로 전환시키는 맥락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금융 의제의 수준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중국과 개발도상국 및 세계 경제에 걸쳐 지속가능금융 의제를 특정 짓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가능금융 위상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가 UNEP FI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2013 Global Roundtable이 개최될 즈음 발간될 예정이며, 앞으로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중동 ESRA 워크숍, 오만 Muscat에서 1월 15-16일에 열려



사진: wikitravel

UNEP FI가 중동지역에서 ESRA 기초 워크숍을 주최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은 1월 15,16일 이틀 동안 오만 Muscat에서 열렸으며, UNEP FI의 지역 회원사인 Muscat 은행과 공동주최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지역 내 금융부문에서 은행 간부, 위험 관리사 및 다른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투자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시 환경적, 사회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 좋은 기술 그리고 중대한 이익에 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2013 일정 - ESRA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ESRA) Online Course

(2013년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일정 확정)

2005년부터 UNEP FI가 만든 "ESRA(환경·사회 리스크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 3,300명 이상을 교육시켜왔다. 이 과정은 회사, 기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신흥 시장과 거래하는 투자은행 및 소액 거래 은행의 위험관리자들과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대출 및 투자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위험의 정의 및 평가, 관리에 대해 교육해준다.

UNEP FI, GIZ 그리고 Ecobanking 프로젝트를 활용한 INCAE경영대학원에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2013년 교육 일정

| Language | Date |
|----------------|---------------------------|
| English | 1 to 19 April |
| Spanish | 8 to 26 April |
| French | 15 April to 3 May |
| English | 6 to 24 May |
| Spanish | 10 to 28 June |
| English | 22 July to 9 August |
| Spanish | 2 to 20 September |
| French | 7 to 25 October |
| English | 28 October to 15 November |
| Spanish | 11 to 29 November |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이 과정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수강이 제한되어 있으니

[온라인 등록 양식](#)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5개의 기업, UNEP FI 커뮤니티에 가입하다



1. 기업명 : TAL (전 TOWER Australia)
2. 국가 : 호주
3. 업종 : 생명 보험
4. 가입일 : 2012년 10월 2일



1. 기업명 : PORTO SEGURO
2. 국가 : 브라질
3. 업종 : 보험
4. 가입일 : 2012년 10월 23일



1. 기업명 : The Link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2. 국가 : 홍콩
3. 업종 : 부동산 투자 신탁
4. 가입일 : 2012년 9월 18일



1. 기업명 : Inflection Point Capital Management
2. 국가 : 캐나다
3. 업종 : 자산 운용사
4. 가입일 : 2012년 11월 10일



1. 기업명 : Seguradora Líder DPVAT
2. 국가 : 브라질
3. 업종 : 보험
4. 가입일 : 2012년 11월 1일



녹색보험 상품개발 선도...보험사 최초 녹색경영 지원

앞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녹색산업의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보험사에 지속가능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보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 보험사로는 현대해상이 최초로 CDP에 서명했다.

H 현대해상

이와 함께 현대해상은 현재 전직원과 플래너를 대상으로 녹색경영 실천을 위해 '7 그린 해비츠(GREEN HABITS)'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특징은 본인의 탄소절감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내 포털 사이트 화면의 '그린(Green) 현대해상 실현을 위한 7가지 녹색습관'이란 팝업 창을 통해 각 항목의 실천 여부를 체크하면 나의 탄소절감량과 회사 전체 탄소절감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녹색금융, 이제부터 진짜 시작

지난 12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한 '녹색금융 확산 협약'으로 환경기업의 정보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녹색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은 환경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신한은행 녹색뱅크팀의 김상용 과장은 "녹색기업으로 인정하는 데 주로 인증제도에 의지하고 있어 녹색기업 수가 많지 않다. 녹색기업으로 인정할 기준이나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산업구조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권은 항상 리스크를 감안해서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 때문에 녹색금융이라 할지라도 보증한도와 신용등급이 필요하며,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 지원이나 수수료, 이자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김 과장은 "예비녹색기업을 위한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 무엇이 '녹색'인지, 무엇이 '환경'에 기여하는지 정부, 금융권, 민간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협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녹색금융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보증기금과 MOU

KB국민은행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수환경산업체'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우수환경산업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전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3만개가 넘는 국내환경산업체 중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100개 업체를 선정, 금융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수환경산업체는 기존의 전문인력 고용지원, 정책육성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직·간접지원 외에 추가로 금융지원 우대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화에 탄력을 더하게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KB Green Growth Loan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금리 우대·적금이자율 우대·KB WISE 금융컨설팅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운동,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원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무릎담요를 배부하였다.

이번 무릎담요 배부는 최근 급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취해진 조치로, 실내온도(20°C 이하) 유지로 인해 자칫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한 이순우 은행장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정책에 대해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비사무용 전등 50% 소등 및 피크 타임시 승강기 제한운용, 밤 11시 이후 영업점 간판 소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